

8/11/19

설교 제목: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 복음 10 장 32-45 절

- (막 10: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 (막 10: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절관주** 마 20:17, 눅 18:31
- (막 10: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 (막 10: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막 10: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절관주** 왕상 3:5
- (막 10: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 (막 10: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 (막 10: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절관주** 행 12:2, 계 1:9
- (막 10: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 (막 10: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절관주** 마 20:24
- (막 10: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절관주** 눅 22:25
- (막 10: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절관주** 마 20:26, 눅 9:48
- (막 10: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였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지경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에서 었습니다.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여느 때와는 달랐던지라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시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막 10: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막 10: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막 10: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곧 사람이라고 하신 그 자체가 스스로를 말할 수 없이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서 당신이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사 53:3)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당신이 죽은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흉악한 강도이거나 반역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신 21:22)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신 21:23)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메시아로 믿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십니다.

나무 십자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 추구했습니다.

(막 10: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막 10: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막 10: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인가 자신들을 위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립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회복되어 강대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 곧  
권력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잘못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고난 당할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고 성공한다는 기복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 곧 세상에서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합니다.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10: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막 10: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막 10: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을 얻으실 때 좌우편 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는 것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하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의미도 바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선뜻 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머리 속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후에 얻을 좌우편 자리를 위해서 그 정도의 고난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대답한 그대로 너희들은 당신이 마실 잔을 마실 것이며 당신이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야고보는 사도 중 가장 먼저 목베임을 당함으로써 순교했고 요한은 밧모섬에서 일생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이 요구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구하자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막 10: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열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며 더 큰 권력을 차지하고자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계하십니다.

(막 10: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막 10: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막 10: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큰 자는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립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이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배의 원리로 운영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막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큰 자는 복음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 세상 부에 연연해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는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십자가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이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